

근거이론을 활용한 조경현상설계의 사후평가[†]

- 광고호수공원을 사례로 -

홍윤순* · 박재민**

*한경대학교 조경학과 · **한경대학교 건설공학연구소

A Study on the Post-Evaluation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based on Ground Theory

- Case of Gwanggyo Lake Park in Korea -

Hong, Youn-Soon^{*} · Park, Jae-M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Construction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hile there have many completions of large parks recently under development, there has been a dearth of quality assessments. Studies focused on post-evaluation have been made to resolve this, but most of these are biased toward user satisfaction after completion and therefore behaviour analysis has limitations on solving problems during the actual design implementation proces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nal phenomenon and structure of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design competition through the ground theory and microscopic independent perspective.

As a result, maintaining the identity and differentiation of parks derived from the preserved design competition scheme contributed greatly to completeness and satisfaction. Outcomes were mainly caused by the trust of public officials as the ordering organization, the will of policy decision-makers, and the competence of operational enterprises, etc. Negative factors such as undermining the whole concept of the park and landscape occurred as external pressure and related subjects intruded on change design factors due to variations in social conditions. Additionally, illogical construction processes occurred, such as a reinvestigation of the budget for restoration after damaging on original landscape. There have been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ork processing system. On balance, an interventional role is very important in the park construction process, especially the PA and operation committee in terms of maintaining the basic direction, landscape design supervision for detailed designs, and expert construction management on LA in terms of rational work management in the field. The study, using the microscopic perspective of the designer and ground theory, deliver significant meaning as an early study by suggesting alternative methods for the after-evaluation of large parks and structurally looking into main influence factors driven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Key Words: POE, Large Park, Reservoir, Memory, Urbanism, Qualitative Research

[†]: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2015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Jae-Min Park, Construction Engineering Research Laborato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nseong 17579, Korea, E-mail: mean-judy@hanmail.net

국문초록

최근 대형 도시공원 조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모든 공원에 대한 평가가 우수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사후평가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준공 후 이용자의 만족도와 행태분석 등에 치우쳐 실제 설계구현과정상에 있어온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관계자들의 미시적이고도 주체적인 시선으로부터 현상설계 구현과정의 내부적 현상과 구조를 근거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현상설계의 기초를 견지함으로써 공원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지켜낸 것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주로 발주처 공무원의 신뢰, 정책결정자의 의지, 시공업체의 역량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반면,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외부의 압력과 관계 주체가 개입한 설계변경요소도 발생한바, 이는 공원의 전체적 컨셉과 경관을 훼손하는 등 일부 부정적 요인을 발생케 하였다. 아울러 우수한 원형경관을 훼손한 후,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는 등의 불합리한 시공과정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발주처 차원의 업무처리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원조성 과정에서 ‘중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기본방향의 유지 측면에서는 PA와 운영위원회, 미시적 설계 측면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 그리고 합리적 현장업무처리의 측면에서는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설계자의 미시적 시선으로부터 근거이론을 활용한 본 연구는 대형공원 사후평가의 대안적 방법과 조성과정에서 야기되는 주요 영향인자를 구조적으로 살펴본 초기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POE, 대형공원, 저수지, 기억, 어머니즘, 질적연구

I. 서론

디자인 콤피티션(design competition)을 지칭하는 ‘현상설계’는 기존의 관행을 넘는 참신한 설계방법론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전 방위적으로 소개되어온 우수한 현상설계안들은 계획·설계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상설계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 현실에의 구현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상설계구현과정 상의 내밀한 역학관계와 그 내부에 있어온 구체적 고민 및 의사결정과정 등이 제공하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현상설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설계과정에서 주요 설계관계자들의 내부적 시선에서 현상설계의 구현과정을 사후평가함으로써 설계관련 행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난 2008년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국제지명초청설계공모를 시행¹⁾한 경기도 수원시 원천 및 신대저수지 일대(총면적 2,043,858m²)의 광고호수공원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한다. 8개 팀이 지명 초청²⁾되어 이루어진 현상설계의 당선작은 국내 설계자들로 온전히 구성된 팀 중 하나인 (주)신화컨설팅 주관사의 ‘Urban Reservoir’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설계가 이루어져 2013년 4월 준공되었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당시 주요 설계관계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기간 내의 기억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광고호수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이 공원은 국내에서 근래에 시행·완료된 조경현상설계의 대표적 사례이며, 현상설계 구현과정에서 디자인감리를 활용하여 초기 설계안의 골격 개념이 비교적 잘 구현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³⁾. 즉, 현상설계의 기초가 전체적으로 유지되면서도 현장의 미시적 상황과 적응하며 세부설계가 완성된 이 공원의 사례는 새롭고 전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상설계 및 그 이후의 공정과 관련된 설계풍토에 대한 문화와 제도, 행정전반을 잘 드러내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그간의 관행적 분석과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즉, 연구대상지 계획·설계의 전과정상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설계자들의 시선에서 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심리학, 교육학 등의 연구수행 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근거이론을 통해 구조화함으로써 국내의 대표적인 공원 현상설계의 구현과정상에 내재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지와 이론적 고찰

1. 광고호수공원 현상설계와 구현과정

광고호수공원의 중심영역을 차지하는 원천저수지는 1977년 원천유원지로 지정되었다. 이 저수지 주변부에는 유선시설, 숙박·요식업소, 위탁시설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1990년대 말에는 영상테마파크로의 정비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구체화되지는 못하였다. 2004년 6월 광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원천·신대저수지가 지구 내부에 포함되며, 사업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원천·신대저수지는 과거 교외지역에서, 새로운 신도시 중심의 공원으로 거듭나며, 광고와 수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적 근린공원으로의 기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광고호수공원은 신도시의 자연·문화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신도시의 이미지와 장소성을 구현하고, 도시구조 및 조직과 소통하는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Jang, 2013;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2008). 한편, 과거의 호수공원 조성 선례들이 사업 주체의 주도적인 설계로 이루어졌다면, 광고신도시는 시민개방형 유원지계획에 의한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쳤다. 다양한 이용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성공적인 사업화 방안에 주력하였다. 즉, 공모지침 수립 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기도를 비롯한 공동시행사는 설계공모 시행 전에 별도의 과정을 통해 호수공원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검토해 왔다. 또 호수공원의 비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전연구결과들은 설계공모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제공되었다(Kim *et al.*, 2009).

이러한 사전작업과 설계공모 참가의향서의 검토를 토대로 국내외 8개 팀이 지명 초청되었으며, 2008년 8월 현상설계의 공모가 공고되어 작품을 11월 제출토록 하였다. 설계의향서가 채택된 8개 설계사는 기술인력 등을 보완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하였으며, 2008년 12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현상설계 당선작의 참여자들이 밝혔듯이 설계안이 견지한 설계관점은 '주변 풍토경관의 보존과 활용', '대상지 고유특성의 재해석을 통한 도시제방과 둠벙 요소의 도입', '두 저수지 간의 극명한 대조관계 설정'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되며(Kim *et al.*, 2009), 세부설계과정에서도 이를 견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후 전체 1,100억 원이 투입된 매머드급 공사는 삼성물산이 대표 시공업체로 참여하여 2010년 6월 본격적 착공을 시작한 끝에 2013년 4월 준공하였다(Figure 1 참조).

2. 현상설계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현상설계제도는 발주 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질적 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질을 고양하고 분야 발전에 기여한다. 라빌레트 공원과 다운스뷰파크 등은 동시대적 이슈에 천착한 대표적 국외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순기능을 겨냥해 국내에서도 유수의 공원현상설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Wi(2000)는 20세기말 한국의 공원 현상설계 작품에서 드러나는 설계경향들을 외부적 영향요소인 콘텍스트(context)와 드러나는 설계안의 특징인 텍스트(text) 간의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후 최근에도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는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특정도시나 권역의 거점공원, 택지개발계획지구 내 기반시설로서의 공원 등에 대한 현상설계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용산공원, 과거의 여의도공원과 안양 삼덕공원 등의 현상설계 결과물들은 이후의 시행과정에서 정치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왜곡되어 왔다. 조형문화에 대한 외부의 인식부족을 드러내는 상기 측면과 더불어 현상설계에 대한 내부적 우려와 비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당선을 위해 동원되는 의미와 표현상의 과잉 문제, 제도시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문제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Hong(2011)은 주택단지의 기반시설로 기능할 조경현상설계지침과 설계안들을 비교하여 설계안의 단초가 되는 지침 및 관련제도 시행의 개선을 모색한 바 있다. 아울러 Lee and Cho(2013)는 다수의 사례에 대해 델파이와 중요도 분석, 그리고 전문가 샷렛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조경설계공모 시스템의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3. 사후평가 관련 연구 동향

특정한 환경이 완성된 다음, 그 공과를 논하는 것을 사후평가라 할 때,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어 왔다. 현재 국내의 공식적 제도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⁴⁾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공공 건설공사의 시행내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사후평가방식의 실제 활용성은 제한적이라고 비판되어 왔다. 많은 경우 정량적 분석을 통해 계획 대비의 실측치에 대한 결과값만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 대안 및 해결책을 담고 있지 못함이 지적된다(Song and Go, 2014). 이에 더하여 최근 들어 대형공원의 조성 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설공사와 비교할 때 조경분야는 아직까지 공식적 사후평가의 대상과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사후평가의 한 방법으로 '이용 후 평가(POE)'가 이용된다. 이는 사업의 조성과정보다는 사업 후 이용자의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 설문조사(survey), 개별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이용자 관찰방법(user observation) 등의 연구방법이 동원된다. 대표적인 연구사례로 Park(2010)은 2000년 이후 설계시공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된 서울시 및 경기도 내 공공청사의 조경설계 의도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지특성, 그리고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한 바 있다. 이들 연구방식은 이미 보편화된 까닭에 본 연구대상지인 광고호수공원에서 도 진행되었다. Seo *et al.*(2014)은 이용자의 공간이용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행태지도(behavioral mapping technique)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본 광고호수공원의 사후평가를 작성한 바 있으며, Kim and Kim(2015)은 동일한 공원의 산책로 이용자가 갖는 중요도와 만족도를 역시 정량적인 통계방식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한 바 있다. Jang(2013)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Figure 1. Gwanggyo lake side park's maps and views
 Source: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2008), blog.samsung.co.kr

참여의 활성화 전략을 제안한바 있다. 이용자의 태도와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이러한 연구는 실제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의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나, 시설에 대한 민원을 반영하는 정도라는 극단적 평가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러한 점에 더하여 식물과 물, 지형 등 자연환경을 다루는 조경분야의 경우, 건축이나 토목에 비하여 감각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량적 사후평가방식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실제로 반영되면서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공과 부에 대한 그 메커니즘 등과 같은 정성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후평가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바, 본 연구는 그 방안으로 '근거이론'의 활용을 모색한다.

III. 연구의 방법

1. 근거이론

근거이론(Ground Theory)은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혹은 기존의 사회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서 실제적 분야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 내부자의 시선으로 일상적 세계를 바라보며, 세계와 행위, 그리고 부여된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결과나 산물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중시하며, 설득보다는 발견의 맥락을 강조한다(Lee and Kim, 2012). 근거이론은 특히 특정한 상황에 대한 직관과 이해를 통해 인간의 행위, 상호작용과 이에 대한 의미를 통찰할 수 있다. 근거이론에서 자료의 분석은 코딩(code), 개념화(concept), 분해 및 조합(categories)의 과정을 통해서 이론화(theory)하는 과정을 말한다(Strauss and Cobin, 1998). 근거이론은 일반적으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으로 진행하며,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중 축코딩은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맥락적 조건(context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현상(phenomenon), 전략과 상호작용(actions and interactional strategies), 그리고 결과(consequences)의 정리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인과적 조건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하며, 맥락적 조건은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문제나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시공간에서 차원적으로 교차하는 조건들의 특수한 조합을 일컫고, 현상은 '현재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일컫는 용어이다. 반면,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거나 바꾸는 조건들을 말하며, 종종 행동이나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통해 설명된다.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나 문제, 쟁점 등을 다루는 방식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목적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결과는 전략적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로서, 행동이나 상호작용에 의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Strauss and Corbin, 1990; Kim, 2014). 다만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고정된 것이 아닌,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유연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기에, 각 연구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Strauss and Corbin, 1998; Lee and Kim, 2012)는 견해 역시 존재한다.

2.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전화인터뷰(2016년 3월 20~25일)를 통해 광고호수공원 주요 설계 참여자를 목록화(14명)하였고, 관계자 인터뷰를 토대로 계획·설계과정 중 세부야별 의사결정주체를 담당한 설계자 4명을 선정하였다(Table 1 참조)⁵⁾. 본 인터뷰는 2016년 4월 12일~5월 20일

Table 1. Character of interviewees

Person	Gender	Age	Role	Interview time
A	M	56	General controller	1 h 31 min
B	F	45	Competition manager	1 h 9 min
C	M	53	Working drawing manager	2 h 45 min
D	M	45	Design supervisor	1 h 42 min
Sum	-	-	-	7 h 7 min

사이에 개방형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최소 1시간 9분에서 최대 2시간 45분간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

수집한 구술 자료는 개방코딩과 축코딩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1단계 개방코딩에서는 줄 단위로 내용을 분석하여 자료의 실체를 개념화하고, 정보를 범주화하였다. 2단계 축 코딩에서는 지속적인 내용의 비교를 토대로 범주를 연결하였다(Cresswell, 1998; Shin *et al.*, 2008). 인터뷰 분량이 많고 관계가 복잡하여, 총 18회의 순환과정을 거쳐 개방코딩과 축코딩 작업을 완료하였다. 축코딩 이후, 선택코딩 과정을 거쳐 상황모형을 작성하였으나, 핵심범주 내용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어, 연구자 사이의 토의를 거쳐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토의와 시사점을 개별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근거이론 적용연구와 달리 Figure 2와 같이 항목별 번호와 연결선을 이용하였다. 이는 연구과정에서 각 요인 사이의 인과 및 영향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⁶⁾.

코딩과정을 통해 분석한 내용은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보여주고, 해석이 타당한지를 검토 받았다. 그리고 잠정적 결과를 동료에게 보여주어 동료 검증(peer debriefing)을 진행하여(Lincoln and Guba, 1985)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분석과정을 통해 파악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현상'과 '전략과 상호작용', '결과'에까지 이르는 세부내용 및 상호 인과관계, 그리고 범주의 관련성을 페러다임 모형으로 재배치하면 Figure 2와 같다. 구술된 세부내용들은 긍정적, 부정적 사항들과 중립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결과의 해석에서 이를 시작적으로 요약함으로써 상호 맥락간 관계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토록 하였다. 근거이론을 설명하는 각 단계별 주요 내용과 함의를 요약하면 Figure 2와 같다.

1. 공원조성과 관련된 인과적 조건

본 연구에서 공원 조성 과정에 영향을 준 인과적 조건으로는, [1.1] '참여 시공업체의 역량', [1.2] '정책 결정자의 의지', [1.3] '현장 자원', [1.4] '법 제도'에 의한 제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좋은⁷⁾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특히 실무 공무원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전반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설계사에 대한 신뢰 관계구축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의지는 [2.4] '지역사회 여건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편, [1.1] 참여 시공업체의 역량은 설계공모 안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는데, 특히 새로운 시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공사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고 설계관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2. 공원조성과 관련된 맥락적 조건

인터뷰 결과, 설계관계자들이 언급한 맥락적 조건 중심의 관계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설계사에 대한 [2.1] '발주처(공무원)의 태도와 인식'은 설계사의 업무추진과정과 업무의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광고의 경우, 기존 사례에 비하여 발주처에서 현상설계안의 가치와 설계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설계관계자들의 업무 의욕이 높아졌고, 업무에 보다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2.3] '실무 공무원의 의사결정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였지만,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발주처의 실무 공무원의 책임문제 등으로 원활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의 [4.1] 'PA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로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2.4] '지역사회 여건변화'는 거시적인 변화로서 인근 주민의 많은 민원을 유발하였고, 이익집단 등의 압력행사로 이어졌다. 이러한 압력행사는 이후 설계 변경의 중요한 인자로 작동하였다. 특히 발주처 실무 공무원의 [2.5] '설계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공원 전반의 설계 컨셉 유지,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시설 도입, 원형경관의 훼손 등을 유발하여 공원의 전반적 성격과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설계관계자들은 공모를 통한 설계 안이므로 [2.2]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간극'⁸⁾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만 이를 어떻게 보완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미시적이고 세밀한 재설계 등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2.6] '조경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사항 역시 언급되었다.

3. 공원조성과 관련된 주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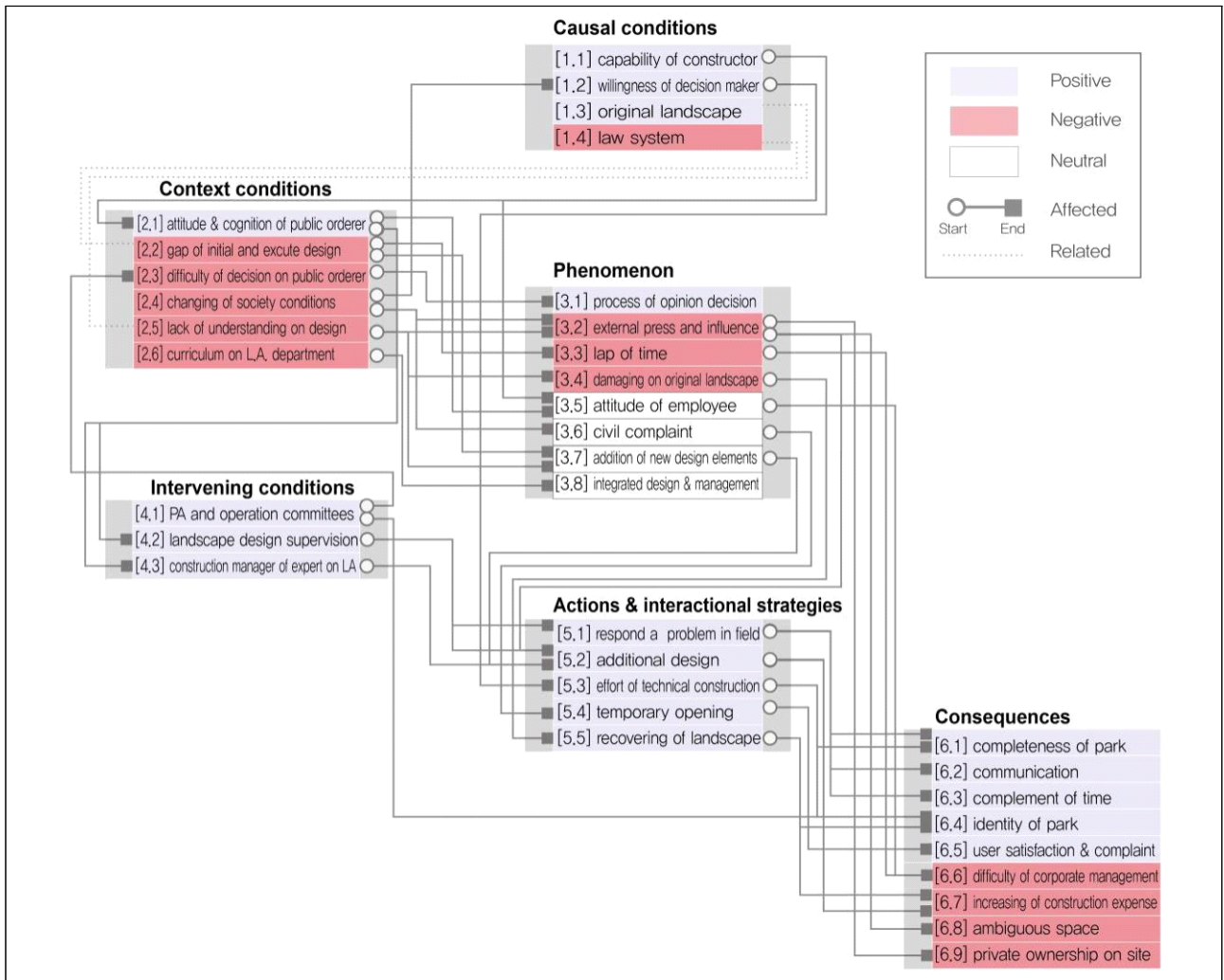


Figure 2. Axial coding paradigm model of the construction processing on Gwanggyo lakeside park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한 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뷰 대상자들이 언급한 가장 긍정적인 현상은 [3.1] ‘의사처리 과정’이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설계과정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의사처리 과정은 설계자의 설계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게 하여 실제 설계에의 투자시간을 증대시켰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대표적인 부정적인 현상으로는 의사결정권자와 이익집단에 의한 [3.2] ‘외압과 영향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초기 설계안에 담겨지지 않았던 전통정자와 락크라이밍 등의 시설⁹⁾이 추가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설계자와 관계 주체 등과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¹⁰⁾, 이로 인해 전체 공원 컨셉 및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도입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하였다. 설계관계자들은 공모 당선 이후 실시설계의 [3.3] ‘시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술회하였으며, 특히 초기 설계안에 대한 행정과의 의사결정, 시설배치에 대한 협의기간이 통상 3~

4개월 소요되므로 실제 가용시간의 부족함을 토로하였다. 특히 대형공원의 경우, 잦은 보고회와 진행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영향으로 전반적 설계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인식하였다. [3.4] ‘원형경관 훼손’과 관련해서는, 초기 설계안에 있어 인과적 조건인 [1.3] ‘현장 자원’은 중요한 인자이지만, 토목분야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 설계 요소인 원형경관 대부분이 훼손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5.5] ‘원형복원’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조정감리에 의해 일부 플라타너스를 이식하였었는데, 이는 실시설계과정에서 중요한 설계요소로 재이용되며, 긍정적으로 구술하고 있었다¹¹⁾.

한편, 공원화 과정에서 민원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지만, 광고의 경우 예정되었던 범원이 입주하지 않는 [2.4] ‘지역사회의 여건변화’의 보상심리가 표출되며, 민원이 급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3.6] ‘주민 민원’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발견되며, 일부 합리적 요구는 설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레비의 그늘 등)를 해결하는데 일조하였으나, 상당수가 전체 설계와 관계가 없는 무리한 요구와 욕설 등인 경우도 많아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조경설계사 내부적인 측면에서 통합설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에 따라, [3.5] '직원의 태도'가 건축, 토목 등을 포괄하는 통합설계 운영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주체적 입장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이는 [2.6] '조경학과 커리큘럼'이 의미하는 학부시절 설계 및 이론 수업에서의 보강학습의 필요성과 연계되고 있었다.

4. 공원조성과 관련된 증재적 조건

공원 조성과정에서 [4.1] 'PA와 운영위원회', [4.2] '조경디자인 감리', [4.3] '조경 전문성을 갖춘 현장소장'이 중요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PA와 운영위원회는 특히 발주처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 책임소재 문제인 [2.3] '실무 공무원의 의사결정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과 공모안의 기조 유지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외부 압력과 여건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설계안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외 인터뷰 대상자들은 PA와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세부적인 기준에는 관여하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방향성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였다.

조경디자인 감리의 경우는,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¹²⁾. 특히 현상공모의 경우, [2.2]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간극'이 크고, 조경은 특히 현장과 설계의 괴리가 많은 데, 이를 감쇄시키는 데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즉, 앞서의 PA와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인 방향성 유지에 중재적 역할을 하였다면, 조경디자인 감리는 현장에서의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데 있어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본 사례의 경우 타 사례와 달리 조경분야전문가가 현장소장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업무 이해도가 높아 불필요한 논쟁이 줄었으며,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과 추가 설계에 대한 대응, 업무처리가 신속하였음을 인식하였다. 특히 외부여건 변화(발주처에 의한 광장 등의 추가 설계요구), 현장에서 추가된 설계요소 등의 경우, 전체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추가 설계를 발주함으로써 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5. 공원조성과 관련된 전략과 상호작용

광고 사례에서는 Figure 2에서 보이는 '전략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원조성의 어려움과 난제를 극복하고 있었다. 인터뷰 대

상자들은 조경 사업은 그 속성상 일반적으로 기존 건축 사업과 다르다고 인식하였는데, 예를 들어 건축의 경우 도면대로의 시공이 가능하지만, 조경은 현장과 설계 요소들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5.1] '현장의 문제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광고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4.2] '조경디자인 감리'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과 초기 설계안의 차이, 설계사와 시공사의 입장, 수목과 자재의 선정 등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6.1] '공원의 완성도'와 부족한 [6.3] '설계시간 보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외 [5.2] '대안 제시 및 추가 설계'를 진행하여 주민 민원, 외압과 영향력 등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한편, [2.4] '지역사회 여건 변화'로 인해 [3.6] '주민민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전략으로 개방공간 훼손에 따른 우려 등의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 구간을 [5.4] '임시개방'하여 결과적으로 [6.5] '이용자 만족도 증가 및 민원 감소'를 가져왔다.

그 외, 시공사는 설계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규모 수변 테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과 같은 [5.3] '기술적 구현 노력'을 실천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설계자는 시공사에 대한 신뢰도, 만족도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¹³⁾. 이는 [1.1] '참여 시공업체의 역량과 시스템'에 관련한 것으로, 초기 설계안을 재현함으로써 전체적인 공원 컨셉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특히 이러한 기술적 구현은 결과적으로 [6.4] '공원의 차별화와 정체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으며, [6.5] '주민의 만족도 증가 및 민원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훼손된 경관에 대해서 [5.5] '원형 복원'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 초기 대응을 통해서 훼손을 예방할 수 있었기에 올바른 선택이라 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즉, 초기 토목의 정지작업에 앞서, 원형 보전을 위한 소통 과정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6. 공원조성과 관련된 결과

앞서의 과정을 통해서, 설계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6.1] '공원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하며, 기존 공원조성 사례에 비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발주처인 행정의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인 지원, 디자인 감리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6.2]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다고 평가하였다. 즉, 초기 공모 안을 유지함으로써, 타 공원과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공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공원 임시개방을 통해서 [6.5] '이용자 만족도 증가 및 민원 감소'라는 긍정적 전환을 맞이하였다.

반면, 설계사 입장에서 본 광고호수공원 조성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는 장기간의 인력투입으로 인한 [6.6] '회사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는 앞서의 설계시간 부족과는 상반

되는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즉, 공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미시적 실시설계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설계사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아져 현실적으로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이었다. 광고 사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발주처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추가 설계량이 많을 경우 별도의 예산 투입과 디자인감리 비용을 부담하여 경제적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을 슬회하였다.

한편, 초기 예산에 비해 [6.7] '공사비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모 안과 현장여건의 차이(레비 설치를 위한 경사로 옹벽 등), 지자체 등에 의한 광장 등 새로운 시설의 요구, 이익집단과 외압(락크라이밍, 전통 정자), 원형경관 복원과 자연 재해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익집단에 의해 조성한 공간의 경우, 특정 이익집단의 [6.9] '공간 사유화'의 폐해를 주목하기도 하였다. 그 외 전체 공간의 컨셉과 어울리지 않는 [6.8] '모호한 공간의 등장'이 언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발주처의 [2.5] '설계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3.2] '외압과 영향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설계관계자는 미래를 고려해서 유보지로 남길 것을 주장하였지만, 발주처는 특정한 용도로 공간을 채울 것을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용도가 모호하고 질 낮은 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추후 재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V. 토의 및 시사점

앞서의 결과를 토대로 광고호수공원 조성에서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을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발주처 공무원과 설계사의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발주처 공무원이 설계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공원조성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광고사례에서는 실무 공무원 등이 설계자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설계안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설계자들의 의욕 상승, 효율적인 업무처리로 이어졌다. 반면, 과도한 보고회와 담당 공무원들의 설계자에 대한 불신은 설계자들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불필요한 업무처리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었고, 이는 업무 집중도, 가용 설계시간과 업무에 대한 의욕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원의 수준과 질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좋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공무원들 스스로, 설계사에 대한 지지자나 감시자라는 생각이 아닌, (갑과 을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무담당자의 태도는 정책결정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원형경관 보전의 중요성 인식과 이를 위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필요

광고 사례의 원형경관은 매우 우수하여, 공모 초기 지침서와 공모 안에서 관련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토목정지작업에 의해 주요한 원형경관은 대부분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복원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예산 낭비와 소중한 원형 자원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광고 사례만이 아닌 대부분의 조경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부족한 공사기간, 토목과 조경의 분리된 업무영역에 의한 것으로써, 향후 광고와 같이 원형경관의 보전과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를 토대로 중요한 원형경관에 대해서는 보전하거나, 정지작업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관 차원에서 원형경관 보전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¹⁴⁾.

3. 현장에 대응한 미시적 설계 필요성과 조경 디자인 감리 제도의 가능성

설계관계자들은 설계 공모 안의 경우, 전체적인 방향과 컨셉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보다는, 현장을 세밀히 파악하여 미시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는 조경분야의 특수성과 관련된 것으로, 조경현장의 미세한 지형과 자원, 구입한 수목의 크기나 수형 등 발생 가능한 모든 현장상황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사례에서는 조경 디자인감리를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었다.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계사, 시공사, 조경감리의 중재적 역할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실시설계 시간의 보완, 의사소통, 시공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광고의 경우, 조경디자인 감리에 관한 별도의 예산을 관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기에 가능하였다. 타 사례의 경우 조경 전체 예산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아 분명 조경감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향후 대형 조경공사에서 조경 디자인 감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경 디자인 감리는 투입 예산에 비해, 공원의 전반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요소였다. 다만 조경디자인 감리의 역할은 기존 조경 감리와 차이를 보이기에, 그 역할(현장 대응, 소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4. 설계안 유지를 통한 공원 정체성·차별성 확립 및 이용자 만족도 증대

광고 사례에 대해 설계관계자들은 이용자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그 근본적 이유는, 광고의 경우 초기 설계안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전체적인 공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타 공원과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초기 공모 당선작의 전체적인 컨셉과 개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익집단과 이해관계자 등의 외부압력은 초기 설계안과 정체성을 훼손하는데 큰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대표적으로 전통정자와 락크라이밍 등 초기 설계안의 컨셉과 전체적인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전체적 완성도가 저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초기 설계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익집단과 의사결정권자들의 불필요하고 사적인 외압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PA와 운영위원회가 중재적 역할을 하였지만, 앞서의 작은 요소들은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요소로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의 중재적 역할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5.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시 설계시간 확보

설계 공모를 통한 대형 공원의 경우, 초기 의사결정 과정, 특히 시설 배치 및 행정처리 등으로 수개월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시설계 시간이 6개월이라 하더라도, 실제 가용 기간은 현실적으로 3개월 미만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시간은 실시설계와 시공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형공원 조성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일정 계획이 요구되며, 그 시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적 역할로 조경디자인 감리의 도입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조경 전공 현장책임자의 효과와 필요성

현장에서 설계안이 유지되는데 있어, 조경 디자인 감리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조경 전공의 현장책임자로 나타났다. 조경의 경우, 미시적 설계와 현장 여건에 따른 변화가 많은데, 조경 전공 현장책임자는 이러한 전체적 현황과 과정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합리적 의사결정과 협의를 이끄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형공원 설계를 비롯한 조경 관련 현장에 조경 관련 담당자가 배치된다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충돌을 막음으로써 시간과 공원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7. 통합설계에 대한 준비와 조경학과 교육의 개선 필요성

조경 설계사 내부 입장에서 (타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설계는 향후 중요한 조경의 변화이며,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조경 설계사 직원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지시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타 분야를 이해하고 업무를 주체적으로 지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선행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조경학과 학부의 커리큘럼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다만 이는 전혀 새로운 과목의 도입보다는, 기존 수업체계 내에서 주체적인 태도와 타 분야에 대한 이해를 학습함으로써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8.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정치·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한 이해

앞서 정책결정자의 의지는 전반적인 공원 조성의 방향, 설계안 유지 및 공무원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 좋은 공원 조성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른 영향, 즉 정치적·행정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계자의 좋은 설계안의 중요성 이전에 사회적 요구와 여론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I. 결론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현상설계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조성 주체인 관, 이용 주체인 시민, 그리고 설계와 시공 관계자들 모두 보다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대형 도시공원은 많은 시민들의 몸과 마음의 안식처이며,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자산이자 도시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장소로서 기능하기에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간 많은 경험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택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해서 좋은 공원이 완성되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책임자들의 내부자 시선에 내포되어 있는 현상설계 구현과정상의 현상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문학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궁극적으로 조성 주체들의 열정과 상호 신뢰를 통한 업무처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정책결정자와 실무 공무원들의 신뢰와 원활한 행정적 지원은 설계관계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졌다. 그리고 초기 안을 유지하여 공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타 공원과의 차별성을 제공한 측면

은 공원의 완성도와 만족도 향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만 공원조성과정에서 현상설계의 컨셉이나 전체 경관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 사적 견해 등을 통해 도입되어 공원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인 역시 발견된 바, 이는 이익단체와 주민의 민원, 정책결정자의 전체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제안들이었다. 대부분의 공원 조성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이들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현상설계 변경을 심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심사숙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공원 조성과정과 관련된 부정적 내용들을 관련 주체들의 인식과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반면,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변화와 정치·행정·문화적 측면의 개선을 위해 현상설계 및 대형공원의 추진 및 구현과정에 드러난 공과에 대한 통찰과 대응 역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 외, 조경학과 커리큘럼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현 사회의 요구에 대한 조경가의 역할 변화와 향후 조경학과 전문교육의 확장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주로 대상지 중심의 공원설계와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타 분야에 대한 이해, 도시적 맥락에서의 공원계획, 그리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학습 또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광고호수공원 사례를 정성적이고도 구조적으로 사후평가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설계자라는 특정 대상의 미시적 시선만을 담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설계관계자들은 분명 타 주체에 비해 관련 사업에 대해 보다 많은 고민과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시공자, 발주처 공무원, 이용자 등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들의 인식을 병치함으로써 그 차이와 특징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적용한 근거이론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상의 개재요인 분석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론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고 명확하게 설계구현과정 상의 구조적 문제점과 특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공모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참가의향서 제출: 2008. 7. 25, 공모공고 및 설계지침배포: 2008. 8. 13, 질의접수: 2008. 8. 14~29, 질의에 대한 응답: 2008. 9. 5, 작품제출: 2008. 11. 26, 작품제출설명: 2008. 12. 7, 수상작 선정 및 발표: 2008. 12. 8).

주 2. 지명초청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가원+(주)동심원+(주)삼우건축, (주)신화건설, 조경설계 서안(주), Field Operation+(wn)그룹한 어소시에이트, Balmori Associate, Grossmax, Stan Alen Architect, (WRT) Wallace Roberts & Todd.

주 3. 현상설계안의 골격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사람들의 이동통로이자 휴식, 모임의 장소였던 기존 제방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제방 '어번 레비'와 땅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장소인 '6개의 뚝방(신비한 물너미, 다목적 체험장, 행복한 들, 조용한 물숲과 향긋한 꽃 섬, 먼 섬숲, 재미난 밭)'이 그것이다. 현상설계안의 내용은 환경과조경(Landscape Architecture Korea, 2009. 1) pp.80-89을, 구현

현황에 대한 내용은 동일 잡지(Landscape Architecture Korea, 2013.6) pp.42-55를 참조하며, 이들의 구성내용은 현재 배포되고 있는 공원안내 팸플렛에서도 드러난다. 이 공원은 국토부가 시행한 '2014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주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②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발주청에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기획 시 예측한 수오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오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 5.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숫자보다는, 인터뷰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였는가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사전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적합한 인터뷰 대상자 4명을 선정하였다. 실제 Park(2013)의 연구에 따르면 34명을 인터뷰하였지만,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에게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주 6. 본 연구에서는 항목의 구분을 위하여 번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각 번호는 우선순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 7. '좋은'은 주관적이며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정책결정자들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선호하며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등의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면서도 주관적 공원의 상(象)을 지향하는 까닭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좋은'으로 표기하였다.

주 8. 현상설계안 작성에 기여한 B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현상설계가 그대로 구현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필요한 공간들이 상세하게 설계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 안에 이런 것들도 다 컨셉 드로잉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져도 극적인 경관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필요한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미려한 동선이라든가. 이거는 다른 스케일의 장에서 다시 전문가들과 (애기)해야 하는데, 보통은 현상설계 한 것에서 빠지고 추가되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많지요,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좀 없고...(후략)".

주 9. 원 계획에는 없었던 팔각정은 광고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것이었다. 당시 민원내용 중 광고호수공원의 부실한 식수문제를 비판하면서 "무슨 호수공원에 정자하나 없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이를 수용하였다(<https://namu.wiki/w/%EA%B4%91%EA%B5%90%ED%98%B8%EC%88%98%EA%B3%B5%EC%9B%90>). 또한 락크라이밍은 관련 동호회집단이 발주처와 행정기관에 요구하여 새롭게 검토되었으며, 이와 관련해서 설계관련자 모두 아쉬움을 보였지만, A와 D 등은 일반이용자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주 10. 디자인관리 책임자였던 D는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세팅을 했는데 거기가 정자자리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 제가 울컥했어요, 진짜 이걸 아십니까. 이거는, 이 공원 자체에 정자는 안 맞는다. 우리가 어딜 가나 정자가 다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도 정자가 꼭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광고 호수)공원에 맞는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저기 공원에 있는 좋은 거 가져오고 저 공원에 있는 좋은 거 들여오면, 이 공원의 정체성은 없는 게 아니냐. 이 공원은 이 공원의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 이 광고 호수공원은 광고호수공원이라고 했을 때 -주략- 이런 걸 계속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전쟁터 같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레도 (결국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안 보이는 쪽에 제일 안보이지만 그 정자에 많은 돈이 드는데, 또 너무 (안쪽으로) 박아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런 자리를 찾아주고, 나중에는....."

주 11. 디자인관리 책임자였던 D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플라타너스가 되게 큰 게 있었어요, 열 몇 주가, 그걸 광장 쪽에 이식을 했는데 거기에 원래는 소나무를 심으려 했는데 배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업체도 자기네는 그거 하려면 다시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하자도 안 나고 뭐가 좋을까. 감리분들과 뭘 할까 고민하다가. 한 분이 플라타너스 큰 거 있는데, 그거 죽지도 않잖아. 다들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이제 별로 좋은 나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보자. 그래서 한 번 딱 봤는데. 이분이 나뭇 전지를 되게 잘 해놨어요. 싹둑 싹둑 안 자르고, 초기에 저 없을 때, 초창기에 옮겨놓은 건데, 전지를 잘 해놨어요. 어, 이상하게 괜찮다고. 저기 하자고, 그거는 하자도 별로 안 나니까, 그거를 심었는데 좋아요 되게. 규모도 되게 크고 그늘도 주고 막 이러니까, 좋아요. 모 교수도 한 번 그 때 와 보고서는 플라타너스를 어디서 구했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식수라고. 그런 나무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 주 12. 본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였던 A는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디자인 감리 좀 도와 달라고 그 양반한테 맡긴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 양반이 시공도 하고 스케치도 되고 자체 설계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부분을 -중략- 회사 내부 인원으로 보내버리면 경비를 쓰이고 해서 할 수 없었는데, -중략- D씨를 합류 시키면서, 그 양반이 해서 굉장히 내용이 좋아졌어요.”
- 주 13. 기존 타 공원 조성과정에서는 초기 설계안의 기술적 제한이 이뤄지지 않아, 시공 과정에서 설계안이 변경되었고 이로 인해 초기 공원 설계 의도와 전체적인 공원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였다.
- 주 14. 현실적으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는, 초기 공모지침서 작성 또는 PA 및 운영위원회 운영 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처와 담당 공무원을 유도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 Landscape Architecture Korea(2009)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Gwanggyo Lake Park*, Suwon, Korea, 249: 74-89.
- Landscape Architecture Korea(2013) *Gwanggyo Lake Park*, 302: 42-55.
- 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2008)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or Gwanggyo Lakeside Park* Suwon, Korea, 2008.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 Hong, Y. S.(2011) A comparative study of landscape design competitions' guidelines and entry plans-the case of winning design proposals for urban infrastructure of the Hangdong Bogeumjari Housing Distric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2): 18-28.
- Jang, M. K.(2013) A Study on the Promotional Plans fo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an Urban Park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Gwanggyo Lakeside Park.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Korea.
- Kim, D. K., H. S. Hong and S. H. Moon(2009) Landscape design proposal for Gwanggyo Lakeside Park - Focused on 'Urban Reservoir', the prizewinning work of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Urban Design* 10(4): 53-66.
- Kim, S. H. and D. C. Kim(2015) A study of people's satisfaction of trails in Gwanggyo lake park using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8(6): 541-547.
- Kim, S. H.(2014) A qualitative study on child care teachers' science education using grounded theor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2): 365-393.
- Lee, D. S. and Y. C. Kim(2012) An inquiry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ed theory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2): 1-26.
- Lee, J. H. and S. H. Cho(2013) An analysis on the problems of design competition process of landscape architecture by the Delphi analysis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1(3): 83-93.
- Lincoln, Y. S. and E. G. Guba(1985) *Naturalistic Inqui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ark, J. M.(2013)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Modern Industrial Landscape through Place Memory.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Y. J.(2010) Study on the Analysis of Designer's Intent and User's Cognitiv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in Landscape Design. Doctoral Thesis, Kyung Hee University, Korea.
- Seo, J. H., Y. N. Choi and J. O. Kim(2014) A study on the use of facilities and programs to improve Gwanggyo lakeside park, Gyeonggi-do, Korea. *Journal of Digital Design* 14(4): 935-946.
- Shin, K. R., M. O. Cho and J. H. Yang(2008) *Qualitative Research*.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Song, D. H. and S. S. Go(2014) A study on the selection of ex-post evaluation items of construction project based o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16(2): 122-134.
- Strauss, A. L. and J. Corbin(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L. and J. Corbin(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2nd e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c.
- Wi, J. S.(2000) A Study on Korean Contemporary Park Design Trends -In the Case of Park Competition Works of the 1990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blog.samsung.co.kr (2016년 8월 10일 확인)
- <https://namu.wiki/w/%EA%B4%91%EA%B5%90%ED%98%B8%EC%88%98%EA%B3%B5%EC%9B%90> (2016년 8월 12일 확인)

Received : 20 September, 2016

Revised : 12 October, 2016 (1st)

Accepted : 12 October, 2016

3인익명 심사필